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2/26℃ 목포 23/25℃ 여수 21/24℃

단기 4342년 (음력 5월 1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kwangju.co.kr 제18412호 1판 2009년 7월 7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정대표 "모든 기득권 포기, 문 활짝 열겠다"

민주 대대적 물갈이 예고

지방선거 공천 촉각…강운태·전갑길·이석형 등 복당 인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 민심도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6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민주개혁진영은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거대 여당과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며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사 영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지난 5일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에서 "호남은 지방선거에서 자기사람 심기 관행에 벗어나 지역사회 저변에서 존경받은 풀뿌리 일꾼 영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사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이처럼 새인물 영입 등을 잇달아 천명하고 나선 것은 호남으로부터의 공천 개혁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지역 민심도 공천 개혁 등을 통한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갈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의 호남지역 패배와 관련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민주당 공천에 문제가 있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외부 용역 결과, 호남지역 재보선 패배 원인으로 공천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또한, 대안 정당으로서 민주당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용역 결과에 대해 당초 오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려던 방침을 바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이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재보선 호남 패배에 대한 용역 결과를 제시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득권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역 민심의 요구에 맞게 개혁 공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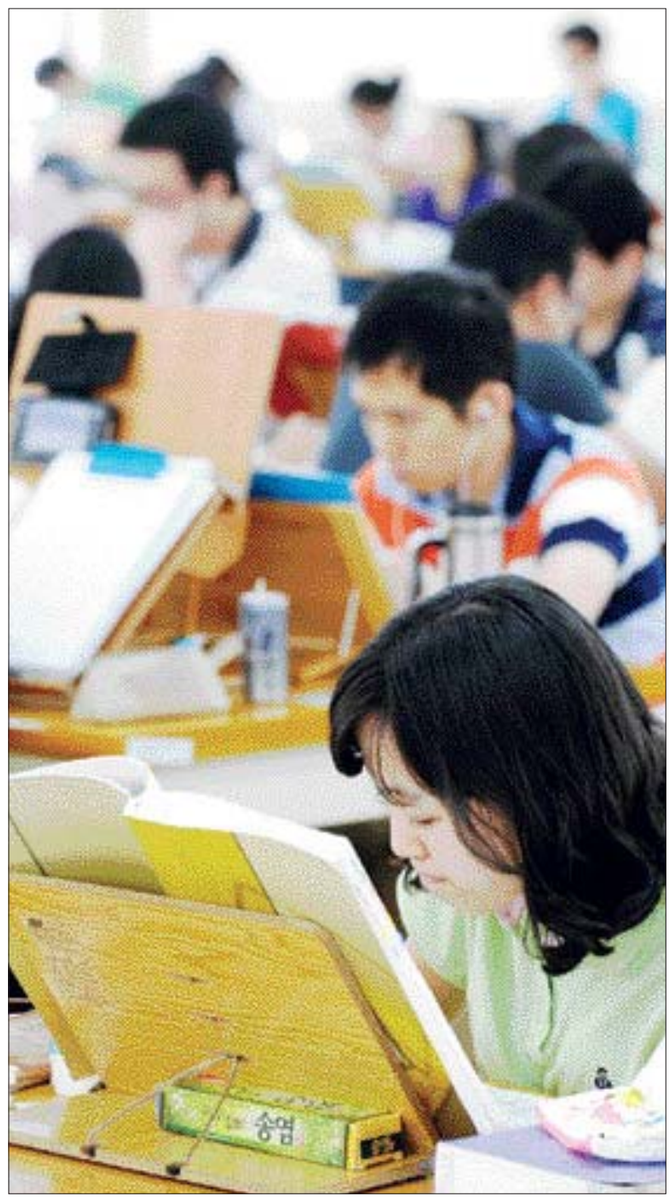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강운태 의원과 김영환 전 의원,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이석형 함평군수 등 4명의 복당을 인준했다.

이 가운데 강 의원과 전 청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군, 이 군수는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각각 거론되고 있고, 김 전 의원은 충북지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날 복당 인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부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역 민심의 요구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라며 "외부 인사 영입과 공천 개혁 등이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열공'에 빠진 대학 도서관 대학가는 방학이지만 학생들에게 7, 8월은 오히려 취업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열공 시즌'이다. 6일 오후 전남대도서관, 1분 1초를 아끼며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비장해 보이기까지 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녹색 강국' 만들기 5년간 107조 투입

정부는 6일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녹색성장위(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 총리 및 김 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또 세부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정책방향도 설정했다.

정부는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 역량, 에너지 자립도·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또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유엔 권고 녹색투자의 2배 수준인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고, 수도권 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단지 등 4개 테마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대통령 재산 331억 기부

자택만 남겨…재단법인 '청계' 설립 장학·복지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대로 자신의 집을 제외한 331억4천200만원의 재산을 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한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를 위해 지난 3월 만들어진 재단설립추진위 송정호 위원장(전 법무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한 달 내에 이 대통령의 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설립, 이 대통령의 출연재산을 이전해 장학 및 복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출연한 재산은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서초동 1717-1 건물, 양재동 12-7 건물 등 3건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한국감정원 평가액 395억원)와 이 대통령 명의의 개인예금(8천100만원)을 합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과 연계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재산 기부로 이 대통령의 남은 재산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44억2천500만원)과 스포츠관련 회원권 및 예금 등 동산 4억8천100만원 등 모두 49억600만원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재단법인 청계의 설립에 즈음하여'이라는 글을 통해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다"며 "그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오늘도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 재산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BBK 의혹' 무혐의 발표 일주일 뒤인 2007년 12월7일 KBS 선거방송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 놓겠다"고 선언했었다.

이 대통령은 재산 기부와 관련, 재단의 명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을 추진위에 일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거나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이런 선의만큼은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우리사회에서 재산기부가 지니는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 웨딩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

골프는 전남 전략산업

道, 국내외 골퍼 유치 팸투어·맞춤형 마케팅 등 전략 수립 박차

정부가 골프장 입지와 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전남도가 골프산업을 지역 발전전략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도는 따뜻한 기후와 친환경적 골프장, 감칠맛 나는 음식 등을 연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국내외 골퍼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 골프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2%에서 2013년에는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외국 골퍼들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항공기와 KTX, 리무진 버스 등 교통수단을 활용한 골프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평일·비수기 이용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체·기관에서 전국규모 골프대회 개최 시 행사비 1천만 원~2천만 원을 지원하고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중국·일본 등 동남아 골퍼 여행객 유치를 위한 팸 투어도 실시하기로 했다.

장태기 스포츠산업과장은 "정부가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인하와 함께 최근 골프장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수도권 골퍼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골프산업을 전남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7일 도청 수리채에서 도내 골프장 대표 임원, 전남개발공사, 교수, 관계공무원, 여행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골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프·레저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디어법, 방송독과점을 없애고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